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	2022. 4. 5.(화)	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남수 (043-719-5351)
		담당자	연구관	이주헌 (043-719-5352)

식약처, ‘투명창 비밀차단용 마스크’ 국내 처음으로 허가 - 입 모양 확인이 가능한 투명한 재질의 마스크... 장애인 편의 증대 -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국내 처음으로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*를 의약외품(비밀차단용 마스크**)으로 4월 5일 허가했습니다.
 - * (업체명) 더조은주식회사, (제품명) 더조은투명창비밀차단마스크(KF-AD)
 - ** 일상생활에서 비밀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
-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한 필름창으로 되어 있어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 - 기존 마스크와 달리 새로운 소재(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)가 적용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▲사용된 원재료의 안전성 ▲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품목허가했습니다.
- 식약처는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써 안전성·사용 편의성·성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대해 맞춤형 상담 등 품목허가와 제품화 과정을 적극 지원했습니다.
 -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외품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, 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